

☰ ☷ (35, 36)

나는 발길 닿는 대로 나선 산책과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환경과 기후의 위기의 시대에 진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이번 여름 대전에서 보낸 3주동안의 매우 주관적인 연구활동의 보고서를 '호기심 연구소(cabinet de curiosités)'와 같은 종류의 형태로 여기에 소개한다.

각자가 자유롭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인 이 전시에서 논리적인 구조나 또는 명확한 메시지를 찾을 필요는 없다. 진보는 아직도 우리를 꿈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예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성공한 현대화에 여러 방법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대전과 인근 지역의 나의 배우들(바로 이 지역의 과학자, 학생, 사상가, 농부, 상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인터뷰를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의견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로 된 몇 권의 저서들과 더불어 여러 권의 책들이 포함된 오브제들은 이 발길 닿는 대로 떠난 산책 동안 수집한 것들이다. 벽에 걸린 흰색의 많은 족자들은 1993년 엑스포의 기념물 또는 과학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예전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래픽적인 요소들로, 과거에 기대했던 기술과학 미래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일종의 유행과 같은 것이다. 위대한 프랑스의 화학자 마르셀랭 베르텔로(1827-1907)의 연설문과 현재 유럽에서 유행하는 테크노 블루(techno-blues)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공학도들의 청원서와 같은 프랑스 원문을 번역한 유사한 몇 개의 자료도 첨부했다.

이 전시의 제목 ☰ ☷ (35, 36)은 역경(역경/易經; 주역/周易) 즉 주역(周易)에서 발췌된 연이은 두 개의 음과 양을 상징하는 세로줄 패로 앞으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 진(晉)패와 빛이 어두워짐,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감을 뜻하는 ☷ 명(明)패이다(이 두 패는 태극기의 네개의 3선형 패 중 두 개로 형성된다). 이 제목은 다음과 같은 고찰에 의해 만들어졌다.

기술종교. 나는 과학이 가져온 진보와 그것과 동시에 태어난 기술에 대한 순수한 존경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실증주의적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아이였던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프랑스는 68개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었다(오늘날 특이할만한 탄소의 배출 없이 프랑스 전기의 70~80%를 생산한다). 우리는 기술 숙련과 기술자의 노하우에 연관된 진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때에는 가지고 있었다. 내가 한국에, 특히 대전에 올 때면, 이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자주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은 나를 감동시켰다. 이후에 나 역시 이 종교의 '사제'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나는 과학적 진전의 일반적인 근본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기술과학이 가능하게 한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정한다. 자연은 보상이 없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과학의 '기적'은 어두운 면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고물상 또는 벼룩시장에서 찾을 수 있었던 질 낮은 종이 위에 인쇄된 지금은 겨우 읽을 수 있는 도식들과 함께 전쟁 직후에 출판된 책들을 포함한 한국의 과학 교과서들의 수준에 무척이나 놀랐다. 그 당시 나라의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웠음에도 이 교과서들은 견고한 과학적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공해, 에너지, 인구통계, 농학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현상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양면성을 족자 위의 대립되는 이 이미지들로 옮겨보려 하였다.

과학계는 그러므로 지구의 물리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오늘날 Re-use, Repair, Recycle (다시 사용하고 고쳐 쓰고 재활용) 3R을 무엇보다도 먼저 강화 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유럽과 같이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전통적인 기본적 가치의 문제일 것이다. 발전을 주도하는 이 미래 정신은 여기에 소개한 일부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에서 특히 지속되었다.

전통은 진정한 과학의 보물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 된 누룩의 제조는 생물공학의 섬세한 형태의 좋은 예인데, 이것은 미생물 작업을 우리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도록 계획된 매우 정확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과학은 고도의 기술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학분야(AI, 로봇공학, 생물공학, 등)에서 대전에서 추진된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역사, 문화, 전통 면에서도 큰 풍요로움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실행의 방향을 다시금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